



대한불교조계종 사불산 대승사 소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이 소재한 대승사는 사불산 품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불산은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죽령 서남쪽 40리 지점에 있고, 산북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오른쪽 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600여m 높이의 산마루에 뛰어난 풍광을 간직한 사불산 대승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라 진평왕 때인 587년 비단보자기에 싸인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공덕봉 꼭대기에 내려앉자, 왕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절을 짓게 하고는 《법화경》을 염하는 이름없는 비구를 주지로 청하여 사면석불에 공양을 올리게 한 것이 창건 기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대승사에는 유일강원이 개설되어 근대의 큰 인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칭송받는 권상로, 안진호가 모두 대승사 강원에 적을 두었고, 대승사 유일강원에는 전국 13개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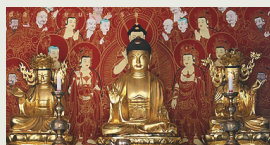
현재 대승가람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극락전, 나한전, 응진전, 시왕전, 선원, 요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쪽에 총지암을 새로 지어 선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속 암자로는 나옹 해근스님의 출가 암자이자 성철스님이 정진했던 묘적암, 비구니 선원으로 이름난 윤필암, 그리고 보현암, 관음암, 문수암이 있습니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마애여래좌상



사면석불

대승사 경로잔치및산사음악회



- 일시 : 불기 2557(2013)년 10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 장소 : 대승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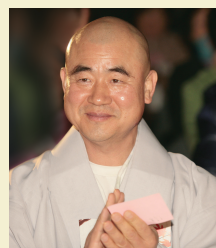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 계 종

사불산 대승사



모시는 글



대승사 주지 철산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들이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염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 앞에서는
 어쩔수 없이 물러가고 맑고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풍성함도 더해주는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얻는 결실이야 말로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될것 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어르신들을 포함한 신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녀노소, 종교의 유무 및 다름을 떠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매년 가을 대승사에서 열리는
 경로잔치 및 산사음악회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화합과 심신을 치유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부대중 및 주민여러분 오늘은 좋은날 입니다.
 한없는 즐거움과 함께 사불산의 신령한 정기도 듬뿍 받으셔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더욱 활기차고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사불산 대승사 주지 철산 합장



대승사 경로잔치 및 산사음악회

출·연·진·프·로·필



사회
 박수경 아나운서
 (대구불교방송)

김범룡
 바람 바람 바람
 친구야
 나의 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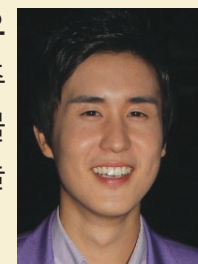
박시연
 십리도 못가
 그 남자

한서경
 소양강 처녀
 내사랑
 낭랑 18세



유지나
 고수
 무슨사랑
 쓰리랑

신유
 잠자는 공주
 꽃물
 시계바늘



금잔디
 일편단심
 오라버니
 신사랑고개